

전남 민간인 집단희생 5천515건 접수

6·25관련...3천735건 조사 중, 진실규명 신청 12월9일 마감 항일독립운동, 권위주의 통치 테러·인권 유린·폭력 등 접수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전남지역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진실규명 요구가 5천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진실화해위원회·전남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달 말 기준 진실규명 신청 1만5천69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1만1천5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전쟁 전후 전남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 접수 사건은 5천515건이다. 접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현재 3천735건을 조사 개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2020년 12월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접수 중인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이 오는 12월 9일 마감됨에 따라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 명예 회복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전남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진실규명 사

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희생자, 피해자·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발송돼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개시가 이뤄지고 사건 조사·진실 규명 여부가 결정된다. 김규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접수 건만 봐도 전남은 어느 지역보다 과거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남은 신청 기간 중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역을 피해 입은 당사자·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사저 경호 강화 전·후 문제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경호 강화 이틀날인 2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일대가 한산한 모습이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경호 강화 하루 전인 지난 22일 비슷한 장소에서 집회가 열리는 모습. 전날부터 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300m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경호차, 경찰이 위험물질을 점검하는 등 경호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근로자 고용안전 '광산 일드림센터' 개소

자동차·가전산업 위기근로자 발굴·근로자 취업지원 등 역할

근로자 고용 안전을 위한 '광산 일드림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23일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광산 일드림센터'(이하 광산취업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산취업지원센터는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공모, 총 사업비 483억원)의 일환이다.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은 2

02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 고용 위기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가전기업 위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취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시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고용환경 개선, 이·전직 전문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위기산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더불어

어 인공지능·공기산업·친환경자동차 등 광주시 미래 성장산업 인력으로 전환해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광산취업지원센터는 자동차·가전기업 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취업상담을 통한 1:1 맞춤형 전환 배치 ▲구인·구직·직접일자리 연계 등 고용 서비스 제공 ▲위기 근로자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올해 취업 상담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산취업지원센터(광산로 72)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자체

한 사항은 광산취업지원센터(062-941-5301)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산업 전환기에 기업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 근로자들이 신성장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광산구일드림센터가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 일자리 허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산취업지원센터 외에도 2021년 광역 취업지원센터(상무지구), 지난 7월 '내일전환아카데미'와 '북구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박선강기자

광주시, 우수 중소기업인상 공모

내달 1-16일 접수...5명 안팎 선정

광주시는 23일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광주시 우수 중소기업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시에 본사와 공장(주 사무소)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이며 본인 신청과 기관 추천 모두 가능하다.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에 근거한 이상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45명의

기업인에게 인증패를 수여했으며 올해에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명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업의 재정 건실도와 경영 평가,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등 정량 평가를 비롯해 근로자 복지 증진, 지역 사회 공헌도 등 정성 평가로 진행된다. 광주시 우수 중소기업인에 선정되면 지정 후 2년 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

(3억원→5억원), 이차차액 1% 추가 보전, 구조고도화자금과 수출진흥자금 용자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1.2%→1%)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 희망 기업이나 추천을 원하는 기관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광주시 창업진흥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박선강기자

"복합쇼핑몰, 상인 보호대책 수립해야"

광주상인대책위, 민관협의체 구성 등 요구

유통 대기업 3사가 광주 복합쇼핑몰 입점 계획을 앞다퉀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인들이 민관협의체 구성과 상인 보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2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장은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을 허심탄회하게 만나 시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고 복합쇼핑몰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유통 대기업들이 약속하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는 동종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시민의 일방적 희생과 생존권 박탈을 전제로 한다"며 "광주 상인 누구도 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 파산과 도산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지길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는 자영업, 유통업 종사 시민들을 배제한 채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는 일방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민선 6-7기 때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상인 참여 보장과 협의를 이끌어냈던 관련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매출 피해 예상 업종·지역 상권 보호 ▲대기업들의 유통 독과점 방지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 수립 ▲기존 광주상권 보호 위한 복합쇼핑몰 중복 입점 규제 ▲동종 업종 피해 최소화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강희기자

전남 쌀 가공품 개발 소비 활성화 앞장

농식품부 라이스컨소시엄 공모 2곳 선정

전남도는 23일 "쌀 가공품 개발·판매로 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라이스컨소시엄 지원사업' 2개소 공모에 전남 업체가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라이스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쌀가공품 판매자가 포함된 연합체(컨소시엄)에 쌀가공품 개발, 전시, 판매를 지원해 쌀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시·도 별로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공개 발표 평가 등을 거쳐 강진 '하이엔드라이스'와 해남·진도 '해·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김재정기자

업체 당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 업체는 시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쌀 소비를 활성화에 나선다. 3년 연속 선정된 '하이엔드라이스' 컨소시엄은 쌀 누룩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해 상품을 다양화하고 해외로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진 컨소시엄'은 수요자의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쌀과자, 쌀빵, 밀키트 등을 개발한다. 강화촌 농식품유통과장은 "쌀 소비 부진으로 쌀값이 지속 하락해 농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쌀 가공 가공제품 개발과 홍보, 판촉활동 등을 지원해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원/달러 환율 또 연고점 1,345.5원 마감

2009년 4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경신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 23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5.7원 오른 달러당 1,345.5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2.0원 오른 1,341.8원에 개장한 뒤 장 초반 1,340원대 초 중반에서 등락해 전날 기록한 연고점(1,340.2원)을 경신했다. 이러한 환율 수준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9일(고가 기준 1,357.5원)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증가 기준으로는 2009년 4월 28일(1,356.80원) 이후 가장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통화 긴축 의지를 재강조하고 나선 데다,

유럽의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 가치가 급등한 영향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기자들과 만나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전 9시 24분께 외환국가는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과정에서 역의 등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직후 환율은 하락 전환하며 1,337.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시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인, 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픈 상담 ▶

절차적 편의 | 법률자 준수 |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통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뽕뽕, 월세뽕뽕,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은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